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김재연[†]

김희수[‡]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세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다룬 국내 질적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폭력 경험의 구조와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질적 연구 14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질은 CASP(2024)를 활용해 검토하였다. 질적 메타요약방법을 적용한 결과, 441개의 1차 진술문을 추출하여 40개의 하위개념 수준의 축약진술문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16개 범주와 5개 핵심주제로 통합하였다. 도출된 핵심주제는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 ‘폭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 ‘탈출의 전환점과 자기 인식의 변화’, ‘회복을 가능케하는 지원체계와 자원’, ‘새로운 삶의 재구성과 미래지향성’이다. 빈도 효과크기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축약진술문은 ‘정서적 위협, 공포’(64.28%), ‘신체적 폭행’(57.14%)순이었고, 그 다음으로 ‘일과 배움을 통해 세워가는 삶의 발판’(50%)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내재된 공통된 의미 구조와 변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다양한 내·외면적 경험과 회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경험, 질적 메타요약

† 제 1저자: 김재연,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김희수, 한세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15852) 경기 군포시 한세로 30

Tel: 031-450-5075, E-mail: kimhs@hansei.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간, 즉 배우자에 의한 폭력,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성인(손자녀)·사위·며느리의 노인에 대한 폭력, 형제자매 등 가족이라는 밀폐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가족원폭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통제, 방임을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22). 경찰청(2025)의 통계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8,680건, 2022년 225,609건, 2023년 230,830건, 2024년 236,6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많은 가정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가정폭력은 가정 내 질서 유지 수단으로 여겨져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김재엽, 1997).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불균형이 일상적 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폭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Dutton & Goodman, 2005; Stark, 2007; Lawson, 2012).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폭력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무력감, 자존감 저하, 침습적 사고, 고립감 등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송성자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202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허용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지속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고, 침묵과 자기 비난의 심리적 패턴을 강화시킨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권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 위협과 통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아개념의 붕괴,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진다. 더불어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이 생존의 위협으로 연결되어 폭력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고, 이러한 현실이 심리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Hamberger et al., 2017; Min et al., 2020). 또한 가정폭력의 영향은 피해자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 관계의 구조를 왜곡시키며, 피해자의 생애 전반에 장기적 흔적을 남긴다. 폭력의 목격자 혹은 2차 피해자로서 성장한 자녀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공격적 혹은 회피적 관계 양식을 보이며, 폭력의 재생산과 피해자 정체성의 내면화 가능성이 크다(Ehrensaft et al., 2003). 이렇게 가정폭력은 개인적 외상을 넘어, 세대 간 전수와 대인관계의 왜곡을 통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도, 피해자들이 경험한 공포와 불신은 대인관계, 직장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한다(Coker et al., 2003; Goodman et al., 2005; 박상태, 2025).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극심한 폭력과 통제의 경험을 딛고 상처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여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설계해 나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폭력의 흔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이해와 회복, 성장으로 나아가는 내적 변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Tedeschi &

Calhoun, 2004; Anderson et al., 2012; Carman & Kay-Lambkin, 2022).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처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회복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가 고통의 종결점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연구 중에서도 폭력의 발생 실태나 제도적 대응, 프로그램 등의 개입 효과 검증이 아닌, 피해자의 경험과 변화, 회복의 과정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성장 경험은 주로 개별 질적 연구들 속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이해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들을 Sandelowski와 Barroso(2006)가 제시한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 경험과 이후 변화 경험에 내재된 공통된 의미와 변화의 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은 어떠한 변화의 흐름과 의미 구조로 나타나는가?’ 이다.

선행 연구 검토

가정폭력은 단일한 사건이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불균형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Dutton & Goodman, 2005; Stark, 2007; Lawson, 2012).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폭력은 신체적 가해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복적인 위협, 감시, 사회적 고립, 경제적 통

제와 같은 일상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자율성과 삶의 선택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의존성을 강화한다. 즉, 가정폭력은 파편화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지배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의 일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amberger et al., 2017; Min et al., 2020; 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은 단순히 외상 증상이 감소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복은 가해자에 의해 침해되었던 안전감을 회복하고, 상실된 자기 통제력을 재구성하며, 단절되었던 관계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직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Herman, 1992).

특히 Herman(1992)이 제시한 ‘안전의 확보 - 기억과 애도 - 재연결’이라는 회복의 단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이 단일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조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계들을 분석 틀로 적용하기보다, 기존 질적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변화의 흐름을 해석하는 개념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 연구들은 네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의 발생 실태와 제도적 대응 체계를 고찰한 연구들이다. 폭력의 발생 원인과 가해자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 예방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법제도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다(김잔디, 2022; 신은별, 윤향희, 2022).

둘째,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력과 피해의 구조적 지속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아동기

피해 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 및 재피해로 이어지는 심리·사회적 경로를 다중매개 모형으로 검증하거나(김지우, 한민경, 2025),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 응집력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이호정, 이창배, 2025),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 피해로 이어짐을 검토한 연구들(손연우, 권호인, 2018)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완화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이다(고은주, 김정우, 2016).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수의 질적 연구들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삶을 다각도에서 살펴 보았다.

우선, 폭력 상황 내에서의 생존과 대처에 주목하여 아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나 자녀와 함께 겪는 생존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 및 피해 이후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 후 한부모가 된 여성의 자활 경험과 주거 이동,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생애 사건을 탐구한 연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정혜숙, 2006; 박윤미, 장연집, 2009; 이희연, 박태정, 2010; 홍상희, 안현의, 2011; 신나래, 2017; 고은정, 2022).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의 실태, 구조적 영향, 개입효과, 삶의 경험 등을 연구 축으로 축적해 왔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다룬 개별 질적 연구들은 가정폭력 속에서의 삶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분산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며, 삶의 변화와 회

복, 나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축적된 질적 연구들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안에 내재된 경험의 공통된 의미와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질적 메타요약

질적 연구종합(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은 다양한 질적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출하려는 질차적 과정이자 연구 방법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6). 질적 연구종합은 연구의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여러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질적 메타합성(Qualitative Meta-synthesis)과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6).

질적 메타요약은 질적 연구결과를 정량적으로 집계하여 공통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자료 자체가 주제적 요약(thematic summaries)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해석적 변환 없이 빈도 효과크기와 강도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주제를 체계적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6; Sandelowski et al., 2007). 즉,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질적 연구들에서 축약진술문을 추출하고, 각 축약진술문의 빈도와 출현 비율을 계산하여 주제 수준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메타요약은 질적 연구 결과를 정량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양적 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과정 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수집하고, 공통된 주제와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적용하였다. Sandelowski와 Barroso(2006)는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를 표 1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과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구상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회복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통합하기 위해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 및

회복과정과 관련한 질적 연구들을 주제조사 수준으로 수집·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그 양상 및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헌검색 단계는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선정 단계로, 관련 연구물을 검색하고 연구물 포함하는 기준과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과정을 다룬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연구의 질 검토 단계이다. 메타요약에서는 질 검토 결과를 연구물의 선정, 배제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통합된 결과 해석의 신뢰도 평가와 한계 분석에 활용한다(Sandelowski & Barroso, 2006; Timulak, 2009).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물을 검토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24)를 사용하여 연구물의 질을 검토하였다. 검토자는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과 교수 1인,

표 1.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

	Sandelowski와 Barroso(2006)	본 연구 절차
1단계	연구구상 Conceiving the study	·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설정
2단계	문헌검색 Searching & retrieving reports	·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선정 · 관련 연구물 검색 · 포함/제외 기준 설정
3단계	연구의 질 검토 Appraising individual reports	· 연구물 질적 검토
4단계	연구 자료 추출 및 분석 Extraction & Analysis of Findings	· 자료분석 · 연구자료 코딩 및 그룹화 · 효과크기 계산 (빈도·강도)
5단계	연구 결과 통합 및 산출 Synthesis output	· 해석적 통합 및 메타요약 결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1인, 그리고 질적 연구 자료 분석 경험을 보유한 상담학과 박사 과정생 2인으로 구성하여 검토한 후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쳤다.

넷째, 연구자료 추출 및 분석단계는 질적 메타요약을 위해 선정된 연구물들로부터 진술문을 추출하는 단계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3; Timulak, 2009).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술문은 의미별로 진술문을 나누었고, 유사한 내용의 진술문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축약진술문을 추출하고 비슷한 주제의 축약진술문끼리 그룹화하였다. 또한 축약진술문별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효과크기와 강도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Sandelowski & Barroso, 2006). 효과크기 계산은 양적 연구의 경험적 정밀성과 질적 연구의 기술적 정밀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질적 메타요약에서 질적 연구결과를 정량적으로 집계하여 연구 간 공통 주제의 분포와 상대적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6; Sandelowski et al., 2007). 이러한 접근은 최근 질적 연구 내에서 주제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하여 분석의 명료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로 제시되고 있다(Halevi et al., 2023; Anderson, 2024). 빈도 효과크기(Frequency Effect Size)는 축약진술문을 포함하는 연구물이 전체 분석 대상 연구물에서 얼마나 자주 보고 되었는지 정량화하는 것이며, 강도 효과크기(Intensity Effect Size)

는 각 연구에서 추출된 축약진술문이 최종 축약진술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Sandelowski & Barroso, 2006; Sandelowski et al., 2007; Timulak, 2009; Shakespeare et al., 2019). 빈도 효과크기와 강도 효과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그림 1과 같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통합 및 산출단계에서는 개별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진술들을 반복적 비교와 종합을 통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들에 대한 메타요약을 수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료수집 절차를 거쳤다. 자료 탐색은 2025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RISS, KCI, 국회도서관)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는 ‘가정폭력’, ‘경험’, ‘변화’, ‘성장’, ‘질적 연구’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검색어 선정은 단순히 피해 사실의 나열이나 증상 중심의 연구를 넘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재해석되며 변화해 가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들을 포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따라서 ‘피해’나 ‘회복’과 같은 결과 중심 용어 대신, 피해자가 변화

$\text{빈도 효과크기(FES, \%)} = \frac{\text{해당 축약진술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연구물의 수}}{\text{분석 대상 연구물의 총 수}} \times 100$
$\text{강도 효과크기(IES, \%)} = \frac{\text{각 연구물에서 추출된 축약진술문의 수}}{\text{추출된 최종 축약진술문의 총 수}} \times 100$

그림 1. 빈도 효과크기와 강도 효과크기 산출 공식

나 전환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변화’와 ‘성장’이라는 검색어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검색어 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단편적 사건이 아닌,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변화의 흐름을 탐색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출판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검색 결과 총 417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우선 검색된 논문 중 중복 논문을 제거하였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및 양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연구물의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진술문의 기술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정폭력 경험 이후 변화 과정이 충분히 기술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초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이나 회복 과정에 있어야 하며, 둘째, 매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째, 각 연구가 제공하는 질적 자료가 풍부해야 의미있는 통합이 가능하므로 (Ames et al., 2019), 전체 진술문의 수가 5개 이하로 제한적인 연구물은 자료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선정 시 참여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참여자 1인으로 구성된 단일사례 질적 연구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포함 기준은 단일사례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합성을 수행한 Stephen et al.(2022)과 함선영, 박은선(202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해당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14편의 연구물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질적 메타분석은 분석 대상 연구물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 2편 이상의 연구로도 수행이 가능하며(Timulak, 2009), Booth (2016)는 6편~14편 사이가 연구물 분석에 있어 최적 범위라고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 사례에서는 이윤희, 김지연(2025)의 연구는 19편, 오태희, 이혜은(2025)의 연구는 16편, 김명찬, 박경자(2023) 연구는 6편, 송만호 외(2024) 연구는 13편, 이윤희(2024) 연구는 11편을 분석하였고, 해외 연구 사례에서는 Bressan et al. (2024)의 연구는 5편, Shorey & Baladram(2024)의 연구는 20편, Hestevik et al. (2019)의 연구는 13편, Childress, S.(2013)의 연구는 13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범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14편의 분석대상 연구물은 질적 메타요약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4편의 연구물은 Sandelowski와 Barros(2006)가 제시한 질적 메타요약 절차 제안에 따라 질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된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24)의 10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검토는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과 교수 1인,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1인, 그리고 질적 연구 자료 분석 경험을 보유한 상담학과 박사 과정생 2인으로 평정자를 구성하여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분석 대상 연구물 중 대부분에서 CASP (2024)의 10가지 문항 중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논문도 일부 있었다.

표 2.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물의 특성

번호	연구목적	분석방법	참여자 (N)	출판 년도
1	폭력가정에서 여성과 자녀의 생존과 관련 된 경험	현상학적 방법	10	2006
2	아동기 가정폭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상학적 방법(Van Manen)	1	2008
3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의 한부모 체험	현상학적 방법(Van Manen)	7	2009
4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본질을 밝히고자 함	현상학적 방법(Giorgi)	9	2010
5	아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 연구	현상학적 방법	6	2011
6	가정폭력 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한인빈곤여성들의 자활경험	클라이언트중심 관점	9	2013
7	피학대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	주제분석	14	2015
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경험 이해	현상학적 방법(Giorgi)	10	2015
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생애사건에 따른 취업과 관련된 경험	심층면담	11	2017
10	아내학대생존자들의 쉼터에서의 원조경험을 이해	내러티브 탐구방법	3	2017
11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와 그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	귀납적 질적 내용 분석	10	2019
12	피해여성의 주거이동경험과 맥락을 탐구하여 피해자가 주거를 상실하는 경험 이해	심층면담	17	2022
13	가정폭력을 경험한 내면의 문제를 외상 후 성장이론에 접목하여 자기를 탐색 하고 이해	자문화 기술지	1	2024
14	학대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타나는 변화 탐구	내러티브 탐구방법	1	2024

반면 연구 목적의 명확성, 연구 설계의 적절성, 자료 수집과 분석의 엄밀성, 연구 결과의 제시 등 주요 항목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도 효과크기는 27.5~87.5%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세편의 연구가(4번, 9번, 11번) 축약

진술문 생성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andelowski와 Barroso(2006) 및 Shakespeare et al., (2019)은 강도 효과크기는 각 연구가 전체 결과 집합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로써, 그 크기가 연구물의 형식(예: 논문 유형, 분량, 분석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의 질이나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자료분석

Sandelowski와 Barroso(2006) 및 Sandelowski et al.(2007)은 메타요약 분석과정을 (a) 분석 대상 질적 연구로부터 결과 진술문 추출하고, (b) 이를 명료하게 편집하며, (c) 공통된 주제 영역 별로 그룹화하고, (d) 축약진술문을 통합한 뒤, (e) 빈도 및 강도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후속 연구들에서 질적 결과의 기술적 통합과 정량적 요약에 위한 기본 분석단계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간 공통된 주제와 패턴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Ribeiro et al., 2014; Timulak,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분석 대상 논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담긴 진술문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였으며, 각 진술문은 의미를 유지한 채 진술문을 축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진술문 안에 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의미에 따라 세분화하여 의미단위로 분리하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진술문들은 통합하였다. 여기서 의미단위는 동일한 중심 의미를 공유하는 서술적 단락이나 문장으로, 각 연구의 핵심 경험 진술을 분석하는 최소 단위이다 (Graneheim & Lundman, 2004).

축약진술문은 유사한 내용과 주제를 기준으로 범주별로 그룹화하였다. 동일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결과가 서로 반복되거나, 확인되거나, 확장되는 양상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간의 주제적 연속성과 차별적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였으며, 도출된 범

주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제 간 연결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룹화 된 축약 진술문은 통합단계를 통해 각 범주의 핵심 내용을 대표하는 최종 축약진술문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도출 된 축약진술문들은 상위범주(핵심개념) - 하위범주 - 하위개념(축약진술문)으로 조직화하였으며, 이는 질적 연구결과의 다양성과 맥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된 의미 패턴을 구조화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6).

분석 과정에서 추출 된 진술문은 총 441개였으며, 여기에서 281개의 의미단위들을 도출하고 그룹화하여, 최종적으로 40개의 하위개념 수준의 축약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자료를 반복 검토하였으며, 삼각검증절차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과 교수 1인과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년간 임상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1인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받았다. 이들은 범주화의 타당성, 축약진술문의 대표성, 해석의 일관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분석틀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삼각검증 및 전문가 합의 검토 절차를 통해 연구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회복과정과 관련한 14편의 질적연구에 대해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41개의 진술문이 추출되었으며, 여기에서 281개의 의

미단위들을 도출하고 그룹화하여, 최종적으로 40개의 하위개념 수준의 축약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최종 축약진술문은 총 16개의 범주로 정리되었고, 이는 5개의 핵심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핵심주제, 범주, 하위개념(최종 축약진술문), 빈도 효과크기는 표 3과 같으며,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메타요약 분석 결과

핵심주제	범주	하위개념(축약진술문)	빈도효과	
1.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	1) 신체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폭력	① 신체적 폭행 (D1, D2, D3, D4, D9, D11, D13, D14)	57.14%	
		② 정서적 위협, 공포 (D1, D2, D3, D4, D7, D8, D9, D12, D14)	64.28%	
		③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D7, D9)	14.28%	
	2)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폭력	④ 자유를 꺾고 순종을 강요하는 폭력 (D4, D9, D11, D12)	28.57%	
		⑤ 여성임을 이유로 가해지는 모욕적 폭력 (D4, D9, D11)	21.43%	
		3)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통제	⑥ 생계를 통제하는 경제적 착취와 방임 (D4, D7, D8, D9)	28.57%
			⑦ 주변과 단절되게 만드는 고립의 강제 (D4, D6, D9, D11)	28.57%
2. 폭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	4) 사회와 문화 속에서 되풀이되는 억압	⑧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시선 (D2, D3, D4, D5, D9, D10)	42.86%	
		⑨ 폭력을 견디라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 (D4, D11, D12)	21.43%	
		⑩ 세대간 폭력의 전승 (D4, D5, D7, D11, D13)	35.71%	
		⑪ 자녀들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는 낙인의 무게 (D2, D3, D6, D11)	28.57%	
	5)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	⑫ 안전한 거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 (D4, D6, D7, D9, D10, D12)	42.86%	
		⑬ 경제적 의존 속에 자리한 불안 (D3, D4, D9)	21.43%	
		6)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	⑭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D7, D11, D12)	21.43%
	⑮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절 (D4, D7, D12)		21.43%	
	⑯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미성년 피해자 (D2)		7.14%	
	7) 지속된 폭력에 작아진 자아	⑰ 폭력 속에서 무너져가는 자존감 (D1, D5, D6, D14)	28.57%	
		⑱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폭력을 합리화하는 태도 (D1, D4, D11)	21.43%	

표 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메타요약 분석 결과 (계속)

핵심주제	범주	하위개념(축약진술문)	빈도효과
3. 탈출의 전환점과 자기 인식의 변화	8) 폭력에 대한 현실 인식	㉑ 가해자에 대한 변화 기대를 포기함(D1, D4, D5, D8, D12)	35.71%
		㉒ 폭력에 대한 인식 수립 및 강화(D5, D11, D14)	21.43%
		㉓ 임계치 수준의 위기 상황 직면(D3, D5, D7, D8, D11, D12)	42.86%
	9) 주체성 강화와 자기보호	㉔ 더 나은 삶을 기대함(D2, D4, D8, D11, D14)	35.71%
		㉕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 (D4, D5, D8, D9, D11, D12)	42.86%
	4. 회복을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와 자원	10) 안전을 회복하는 체계	㉖ 안전을 위한 쉼과 거주 지원 (D1, D3, D5, D8, D12)
㉗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적 보호 (D6, D7, D9, D10, D11)			35.71%
㉘ 새 출발을 열어주는 도움 (D8, D12)			14.28%
11) 마음을 지탱해주는 관계적 지지		㉙ 가족이 주는 정서적 버팀목(D1, D3, D5, D7, D8)	35.71%
		㉚ 가까운 이들이 건네는 지탱의 힘 (D2, D3, D10, D11, D13)	35.71%
12) 상담 자원		㉛ 마음을 쉬게 하고 감정을 털어내는 상담 경험 (D7, D9)	14.28%
		㉜ 상담을 통한 이해와 갈등 해결 능력의 성장 (D11, D14)	14.28%
		㉝ 상담을 매개로 한 가족 기능의 회복 (D11)	7.14%
13)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		㉞ 안정된 거처를 위한 계획 (D11, D12)	14.28%
	㉟ 일과 배움을 통해 세워가는 삶의 발판 (D3, D5, D6, D8, D9, D13, D14)	50.00%	
5. 새로운 삶의 재구성 및 미래지향성	14) 마음을 단단히 해가는 길	㊱ 상처를 의미로 바꾸기(D2, D5)	14.28%
		㊲ 해방감과 새로운 출발 (D3, D5, D8, D10, D12, D13)	42.86%
	15) 주체성을 되찾은 삶	㊳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세워가는 힘(D5, D8, D10)	21.43%
		㊴ 다시 일어나는 힘(D2, D5, D6, D8, D13)	35.71%
	16) 새 삶을 준비하고 다져가는 여정	㊵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꿈(D3, D5, D8)	21.43%
		㊶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배움과 성장(D8, D9, D13, D14)	28.57%
		㊷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인정과 보람(D8, D10)	1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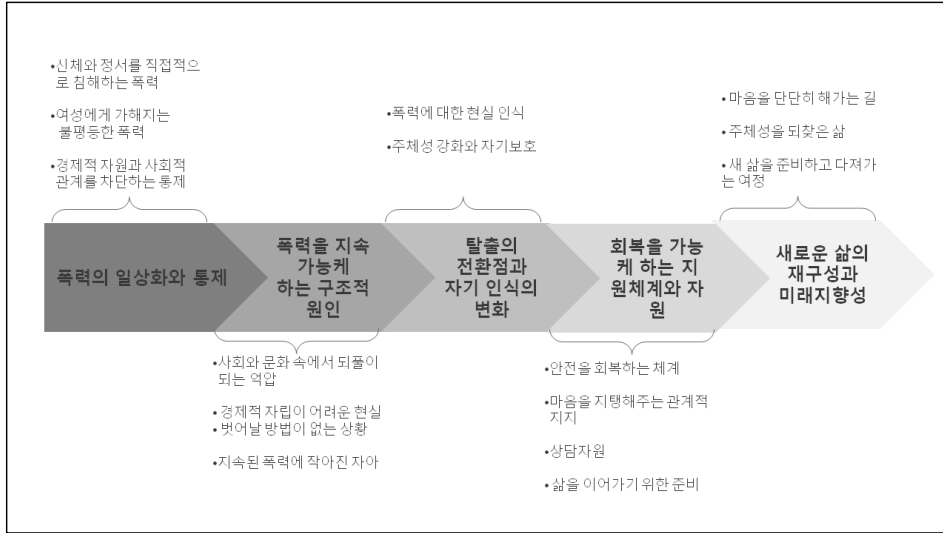


그림 2.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회복과정

핵심주제 1.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통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는 세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는데 [신체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폭력],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폭력],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통제]이다.

첫 번째 범주인 [신체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폭력] 범주는 <신체적 폭행>, <정서적 위협·공포>,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신체적 폭행>은 57.14%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폭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머리, 얼굴, 몸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 장시간에 걸친 구타 등이 포함된다. 임신 중 폭행이나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당한 신체적

학대의 사례도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3시간마다 저를 찌르고 때려서 피멍투성이를 만들었는데(부엌에서)...’(D1), ‘때리기는 임신 5개월 때도 신랑이 때리고..’(D3), ‘진짜 칼을 꺼내는 거예요. 찔러 죽이겠다고..’(D4), ‘그 날 산에 올라가서 또 직살나게 한 대 맞고..’(D9), ‘휴대폰 전원도 끄고 죽이겠다고 데리고 간 거야 거길. 한 밤중에..’(D11), ‘액자같이 집에 혼자 있게 있는 걸로 머리를 내려치고 했어요’(D14)등과 같으며 폭력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신체적 손상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정서적 위협·공포>는 64.28%의 가장 높은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언, 위협적 행동, 예측 불가능한 분노 표출로 일상에서 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며 저를 밤새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D1), ‘(아빠가) 너는 없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D2), ‘발자국

소리 들리면 심장이 쿵쿵 뛰고’(D4), ‘밖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마음이 항상 불안해’(D7), ‘재혼한 남편은 언어 폭력과 성적으로 의심이 많고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었어요’(D8), ‘(아버지가) 내가 어디 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 거 같냐, 잘하는 것도 없고 쓸모없다’(D14) 등처럼 가해자에게 끊임 없이 위협받는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폭력의 위협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환경이 보고되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폭력이 주변인에게로 확장되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 친척, 지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아들이 갑자기 칼을 가지고 작은 아들을 찔러 버리더라고요’(D7), ‘신랑이 와 갖고 그 옆에 탄 지인 뺨을 때렸어요’(D9)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로 향하는 폭력으로 인해 무력감과 공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폭력]은 <자유를 꺾고 순종을 강요하는 폭력>, <여성임을 이유로 가해지는 모욕적 폭력>이라는 두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자유를 꺾고 순종을 강요하는 폭력>의 빈도 효과크기는 28.57%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지배와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장난감처럼,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장난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D4), ‘빨래를 널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D11), ‘집 앞 놀이터도 허락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D12)처럼 피해

자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다루는 존재로 인식하며, 일상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을 이유로 가해지는 모욕적 폭력>의 빈도 효과크기는 21.43%였다. 피해자들은 여성임을 이유로 가해자가 하인, 소유물, 종속적 존재로 취급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여자들을 하인 다루듯이 다루고’(D4), ‘애 아 빠는… 여자랑 애는 3일에 한번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D4) ‘여자가 뭐 말이 많으냐고 밥상을 짹 었는 거예요’(D11)와 같이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폭력경험이 보고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가 열등하게 고착되고, 성차별적 지배 구조가 시사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통제]에서는 <생계를 통제하는 경제적 착취와 방임>, <주변과 단절되게 만드는 고립의 강제>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이 도출되었다.

<생계를 통제하는 경제적 착취와 방임>의 빈도 효과크기는 28.57%였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정 내 경제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생계유지를 방임하는 형태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통장, 카드, 도장 다 챙겨요. 다 내놓으라고 해요.’(D4), ‘둘째 아들이 전세자금이 들어있는 내 통장을 가져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D7), ‘남편은 거의 경제적으로 내팽개치다 시피 했어요’(D8), ‘(피해자의 월급을) 자기 통장에 넣어요.’(D9), ‘내가 돈을 벌면 자꾸 저놈이 가져갈텐데..’(D9)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의 통장, 급여, 카드 등을 강제로 관리하며 경제 자율성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번 돈을 직접 빼앗는 방식으로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가해

자가 경제적 권력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과 단절되게 만드는 고립의 강제>는 28.57%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이) 친정 식구들도 싫어 하니까 전화도 몰래 받고..’(D4), ‘동료들이 애 아빠의 난리법석에 두 손 다 들었죠’(D6),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막아버리려고 하죠.’(D9), ‘야간에 그 학원까지 쫓아와서 바람이 나서 뭐 어찌고..’(D11)처럼 피해자의 통화, 만남, 직장, 학원 활동 등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점차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였다.

핵심주제 2. 폭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는 폭력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구조 속에서 일부 지속,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은 [사회화 문화 속에서 되풀이되는 억압],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 [지속된 폭력에 작아진 자아]라는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사회화 문화 속에서 되풀이 되는 억압]은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시선>, <폭력을 견디라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 <세대간 폭력의 전승>, <자녀들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는 낙

인의 무게>라는 네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시선>은 42.86%의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시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나는 잘못을 한게 아닌데 모두들 원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D2), ‘이혼 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아주 쉽게 보는거 같기도 하고..’(D3), ‘오죽 못났으면 신랑한테 맞고사나 우리나라 의식이 그렇잖아요’(D4), ‘말할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요?) 창피하잖아요..’(D9) 등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보고됐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과 낙인은 피해자의 침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견디라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21.43%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는데,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도 주변으로부터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정유지와 체면을 우선시하며, ‘고모가 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깐 그렇지라고 했다’(D4), ‘시부모님이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고 했다’(D11), ‘이혼하면 다인 줄 아냐며 친정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D12)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내와 회생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규범 경험을 보고하며, 가정폭력의 원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여성이 참지 못한 탓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폭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세대간 폭력의 전승>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연구물들에서 가정폭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학습되고 반복되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이나 폭력의 정당화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무의식적인 모방과 내면화를 통해 다음 세대의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엄마가 그래, 나도 맞고 살았다. 안맞고 사는 사람 어딴냐, 참아라고 하셨다’(D4), ‘남편도 어릴 적 부모의 폭력을 경험했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D11) 등과 같이 폭력이 가정 내에서 학습, 모방을 통해 전승되는 구조적 패턴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큰아들이 아빠를 따라한다’(D7), ‘내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폭력을 그대로 아들에게 되풀이했다’(D13)와 같이 가정폭력이 세대 간 전승으로 되풀이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자녀들까지 함께 깊어지게 되는 낙인의 무게>는 28.57%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가정폭력의 경험은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사회적 낙인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엄마도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지’(D2), ‘학교에서 우리애가 이상한 애 취급당하는걸 알고 속상했어요’(D6), ‘친구들이 놀리겠죠, 저 집은 아빠가 저렇게 했다’(D11) 등 취업, 학교 등 일상적 상황에서 ‘결손가정’, ‘문제가정’으로 평가되거나, 또래로부터 배제되거나 ‘이상한 아이’로 취급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은 <안전한 거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 <경제적 의존 속에 자리한 불안>이라는 두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안전한 거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42.86%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안전하

게 머물 공간과 경제적 생계기반이 부족하여 다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장 나가면 갈 곳, 먹을 것도 없다’(D4), ‘길바닥이나 여관에서 잘 수도 없고… 다시 들어갔다’(D10) 등 가해자와의 경제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막막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복지가 안전을 먼저 봐주지 않는다’(D6),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도 안된다’(D12) 등과 같이 제도적 지원의 미비와 한계가 함께 보고되었다. 피해자들은 주거 보증금, 생활비, 자녀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참고 들어가게 된다’(D4), ‘결국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D4, D10)와 같은 선택을 하여, 가해자가 있는 거주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불안정이 피해자의 선택을 제한하여 폭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의존 속에 자리한 불안>은 21.43%의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회경력단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일상 통제 및 폭력에 노출되어 위축된 자아 등으로 경제활동 기회가 박탈되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벌어야 하는 부담감’(D3), ‘없는 것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주니까’(D9)처럼 피해자들의 생계를 일부라도 가해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적 한계로 나타났고, 경제적 생존이 가해자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인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

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절>,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미성년 피해자>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의 빈도 효과크기는 21.43%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가 나타났다. ‘남편이 법무사 하는 친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다’(D11), ‘택배기사인 척 들어왔다’(D12) 등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보고되었고, 피해자들은 ‘도망가면 더 죽는다’(D12), ‘혼자 살면 찾아올 것 같다’(D12) 등 가해자를 떠날 경우 언제든 가해자가 찾아와 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과 공포를 보고하였다. 결국 보복에 대한 공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려는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절>은 21.43%의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이나 법적 절차를 이용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보고하였다. ‘경찰서에 갔더니 부부싸움이면 알아서 합의하라고 했다’(D4), ‘접근금지도 소용없다’(D7), ‘벌금만 나오고 달라지는 건 없다’(D12) 등 제도적 대응이 피해자 보호에 일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은 ‘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D12) 등과 같이 무력감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미성년 피해자>는 7.14%의 빈도 효과크기를 보였다. 미성년 피해자는 경제적, 물리적 자원 부족과 보호자

의 부재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나 좀 데려가면 안돼? 나 좀 살려줘. 아니면 날 죽여줘’ 라는 요청에도 생계 여건으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는 즉각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D2) 등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독자적 탈출이 거의 불가능함이 보고되었다.

네 번째 범주인 [지속된 폭력에 작아진 자아]는 <폭력 속에서 무너져가는 자존감>,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폭력을 합리화하는 태도>라는 두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폭력 속에서 무너져 가는 자존감>은 28.57%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치감이 점차 약화되는 경험이 보고되었다. ‘밤마다 울면서도 결국 그 인간에게 돌아갔다’(D1), ‘남편이 미운에 죽는 건 싫더라, 그럼 의존일까?’(D5)와 같이 분노, 두려움, 의존이 교차하며, 동시에 ‘이럴 바엔 남편에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D6), ‘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육은 안먹으니까’(D14)처럼 반복된 폭력과 비난이 자기효능감과 존재 가치의 상실로 이어진 과정이 나타났다.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폭력을 합리화 하는 태도>는 21.43%의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당화하거나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 납득하는 피해자의 태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내가 더 잘하면 남편도 잘하겠지’(D1), ‘부부들은 다 싸우면서 사니까 약한 사람이 맞는 줄 알았다’(D4) 등 폭력관계 안에서 인내와 적응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지적 합리화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폭력 자체를 ‘부부 갈등’이나 ‘참아야 하는 일상’으로 인식하며, 가해자와의

이혼이나 분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폭력의 지속과 재귀를 가능하게 하는 내면화된 심리적 구조로 작용하였다.

핵심주제 3. 탈출의 전환점과 자기 인식의 변화

가정폭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은 점진적 인식 변화와 위기 경험을 통해 탈출을 결심하고 자기주도적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탈출의 전환점과 자기 인식의 변화는 [폭력에 대한 현실 인식]과 [주체성 강화와 자기보호]라는 두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폭력에 대한 현실 인식]은 <가해자에 대한 변화 기대를 포기함>, <폭력에 대한 인식 수립 및 강화>, <임계치 수준의 위기 상황 직면>이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변화 기대를 포기함>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폭력 관계 속에서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했으나, 결국 반복되는 폭력과 실망을 통해 변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가 개과천선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D1), ‘십 년을 살던 일 년을 살던 다 똑같았다’(D4), ‘그 사람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D5) 등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소멸과 현실 직면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반복된 폭력과 화해, 사과 이후에도 재발되는

폭력의 경험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관계의 종결을 결심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D8), ‘이제는 아닌걸 아니까 마음을 접었다’(D12)와 같이 단순한 체념이 아닌 탈출과 자기보호를 향한 인식적 변화의 출발점이 시사되었다.

<폭력에 대한 인식 수립 및 강화>는 21.43%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사건과 외부의 개입(경찰, 신고, 타인의 제지) 등을 통해 자신이 겪는 경험을 ‘폭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순가락을 집어 던지고 나를 밀었다, 이걸 폭력이다’(D5)라고 스스로 규정한 경험, ‘아이에게도 이제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D11)며 자녀 보호를 위해 신고를 결심한 사례, 부모로부터 배운 규범과 요구 중 일부가 ‘폭력적 요구’였음을 인식하게 된 사례(D14) 등을 통해 폭력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화해 나간 과정이 나타났다.

<임계치 수준의 위기 상황 직면>의 빈도 효과크기는 42.86%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폭력의 반복 속에서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며, ‘이제는 안되겠다’는 결단의 순간에 다가서는 위기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 소굴에서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었다’(D3),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D5), ‘너한테 맞을 준비 됐다, 경찰에 신고하겠다’(D7) 등은 극도의 공포, 분노, 피로 속에서 폭력관계의 지속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결정적 전환점을 나타냈다. 또한 ‘그러면서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D8), ‘이건 안되겠구나, 끝났구나 싶었다’(D11),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엔 나갈 거다’(D12) 등은 지속적 폭력 노출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내면의 생존 본능이 탈출 결심으로 전환

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주체성 강화와 자기보호]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함>,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함>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도 점차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변화의 의지가 보고되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싶다’(D2), ‘나도 나 같이 살아보고 싶다’(D4),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D8)와 같이 삶에 대한 회복 욕구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 회복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세상을 보게 됐다’(D11), ‘이제는 나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다’(D14) 등 피해자라면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체적 삶으로 나아가는 행동 변화도 보고되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42.86%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에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감이 보고됐다. ‘나라는 존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나라도 나를 지켜야겠다’(D5), ‘내 정신력으로 일어나야겠다’(D8), ‘이제는 폭력을 당하면 신고해야겠다’(D11) 등 자기 인식의 회복, 자존감의 재구성 과 자기보호를 위한 실천적 결단이 나타났다. 또한 ‘진단서를 직접 끊으며 나를 위한 보호장치를 해야겠다’(D12)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 방어를 실행하는 단계도 보고되었다.

핵심주제 4. 회복을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와

자원

폭력관계를 벗어난 피해자들은 안전, 관계, 상담, 생계 등 다양한 형태의 외적, 내적 자원을 통해 점차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회복의 과정은 단순한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안전의 확보-정서적지지-상담을 통한 내면 회복-재정착을 위한 준비’라는 다층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회복을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와 자원은 [안전을 회복하는 체계], [마음을 지탱해주는 관계적지지], [상담자원],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네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안전을 회복하는 체계]는 <안정을 위한 쉼과 거주 지원>,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적 보호>, <새 출발을 열어주는 도움>이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안정을 위한 쉼과 거주 지원>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은 ‘자식과 함께 쉼터에서 살 수 있다는걸 몰랐다’(D1), ‘연결을 통해 무료 임대 주택으로 오게 되었다’(D5) 등 안전한 공간의 확보가 불안정한 삶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이 나타났다. 또, ‘교회 사택에서 하루 자고, 상담소를 통해 쉼터로 갔다’(D8), ‘쉼터가 있어서 행운이었다’(D8), ‘나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구나, 이런 데가 있구나 했으면 진작 나왔을거다’(D12)와 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가해자와의 분리뿐만이 아니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숨 쉴 여유를 제공하는 출발점임이 보고되었다.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적 보호>는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

절'을 일부 보고한 적이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적절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폭력 억제와 회복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경찰과 보호기관이 자주 오니 때리는 걸 안하더라'(D7), '칼을 찌르며 위협했지만 신고 후 폭력이 멈췄다,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D11) 등 공적 개입에 의해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회복 여정의 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쉽터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멈춰 세워줬다'(D10), '늦게 끝나도 아이를 돌봐줄 지원이 필요하다'(D9),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으면 좋겠다'(D6)와 같이 실질적이고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로 필요함이 보고되었다.

<새 출발을 열어주는 도움>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은 단순한 외부 지원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한 친구의 권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다'(D8), '주거지원 등 자세히 알았다면 불안이 덜 했을 것이다'(D12) 등 법률적, 행정적, 사회적 영역, 사회적 관계에서의 여러 도움은 피해자가 불안정한 현실을 벗어나는데 구체적 발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인 [마음을 지탱해주는 관계적 지지]는 <가족이 주는 정서적 버팀목>, <가까운 이들이 건네는 지탱의 힘>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가족이 주는 정서적 버팀목>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피해자들은 폭력의 지속과 탈출의 과정 속에서 가족, 특히 자녀와 손자녀의 존재가 정서적 지탱의 근원

이었음이 보고되었다. '딸이 저는 죽어도 엄마 편이고, 아빠의 말에 현혹돼 들어가면 안돼요'라고 했다, '엄마 제발 자살이나 죽지 말고 살아만 계세요'(D1), '손녀들을 생각하니 살아야 했다'(D7) 등 가족이 단순한 위로로 넘어 피해자의 생존의지와 자아회복과 같은 회복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엄마가 결정한대로 하세요'(D1), '엄마 제발 이혼 하세요'라고 했다'(D5),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찬성해 주어 이혼할 수 있었다'(D8) 등과 같은 사례는 가족의 지지가 피해자가 폭력 관계를 끊고 자기결정적 선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이들이 건네는 지탱의 힘>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가족 이외에도 교사, 친구, 이웃, 상담자 등 타인의 존재가 정서적 회복의 중요한 지탱 요인이 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친구들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다'(D3), '내 편이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D11),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의 무조건적 존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과도 같았다'(D13) 등과 같이 타인의 인정과 격려가 자기 가치감을 회복시키고, 일상 속 관계의 지지가 절망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체적 힘으로 작용했음이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나 동정이 아닌 지지는 피해자가 삶을 지속할 내적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회복자원의 기능을 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상담자원]은 <마음을 쉬게 하고 감정을 털어내는 상담 경험>, <상담을 통한 이해와 갈등 해결 능력의 성장>, <상담을 매개로 한 가족 기능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마음을 쉬게 하고 감정을 털어내는 상담

경험>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상담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받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 안정과 감정의 완화를 가져왔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속상한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좀 풀려요’(D7), ‘이렇게 대화하기도 좋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깐 마음이 편하다’(D7),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많이 풀려요’(D9)와 같이 상담은 문제 해결 이전에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정서적 환기는 피해자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여 심리적 회복 기반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회복자원으로 기능하였다.

<상담을 통한 이해와 갈등 해결 능력의 성장>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상담을 통해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고 갈등을 조절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상담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다투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D11), ‘상담을 받고 들은 내용을 머리에 잘 담아가니까 막말이 줄어들고 폭력도 현재 안하고 있어요’(D11)와 같이 상담이 부부간 갈등을 완화하고,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해봤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인인데 아직 아버지가 나를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D14)처럼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패턴을 재인식하게 하는 과정적 성장도 나타났다. 이처럼 상담은 피해자에게 폭력의 악순환을 인식하고 관계적 긴장을 조율하

며, 자기이해를 확장하는 회복의 통로로 기능하였다.

<상담을 매개로 한 가족 기능의 회복>은 7.14%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체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 후로 아들은 극복했어요. 개도 상담을 받게 만들었죠’(D11), ‘여기서 상담을 6개월 받고 좀 조용해지더라고요’(D11), ‘그(상담) 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D11)와 같이 상담이 가족의 기능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 역할을 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상담은 가정 내 폭력 순환의 중단과 소통의 복원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가족 전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원임을 시사하였다.

마지막 범주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는 <안정된 거처를 위한 계획>, <일과 배움을 통해 세워가는 삶의 발판>이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안정된 거처를 위한 계획>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요즘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 있으면 방 하나 얻어 얘기 데리고 살고 싶어요’(D11), ‘주택부금을 넣었어요. 임대아파트 들어가려고’(D12), ‘청약도 들고 공공임대 노려봐야죠’(D12)처럼 새로운 거처 마련과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의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단절을 현실화하고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게 하는 회복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일과 배움을 통해 세워가는 발판>은 50%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이 일과 학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존재가치 회복

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보고되었다. ‘먼 일을 생각해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D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다’(D8),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D3)과 같이 장기적인 생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활동으로 복귀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나타났다. 또한 ‘경제력을 갖는 것은 저희 같은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에게 중요해요’(D6), ‘다니다 보니까 힘도 들지만 내 만족도 있더라고요’(D9)처럼 경제력의 확보가 독립성, 자기존중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전환점임이 보고되었다. 동시에 ‘모든 사례들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심리학 공부가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D13)처럼 배움을 통해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의 삶을 일궈내는 과정이 가해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회복자원임을 시사하였다.

핵심주제 5. 새로운 삶의 재구성과 미래지향성

피해자들은 폭력의 경험을 지나 과거 폭력 경험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상처를 의미화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 다시 서는 등 폭력의 경험에서 회복하고,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단계가 시사되었다. 새로운 삶의 재구성과 미래지향성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해가는 길], [주체성을 되찾은 삶], [새 삶을 준비하고 다져가는 여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마음을 단단히 해가는 길]은 <상처를 의미로 바꾸기>, <해방감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상처를 의미로 바꾸기>는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폭력의 경험을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이해와 용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추석 때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아빠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취약을 먹었을 때 상황을 아빠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에 서서히 용서가 된 거죠’(D2), ‘나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지만 분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나의 핵심과제’(D5)처럼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자기이해와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보고되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피해자가 피해의 이야기를 성장의 이야기로 전환하여 자신을 단단히 세워주는 심리적 자원이자 회복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시사되었다.

<해방감과 새로운 출발>은 42.86%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의 감각을 회복하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일상을 재구성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유인이 됐다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해요,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 나와서 별을 본 기분이야’(D3), ‘지금 세 식구 너무 편하고, 아들도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D5),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D12)와 같이 해방적 감정과 현실적인 안정이 보고되었다. 또한 ‘그 정도에서 나왔다는 거가 잘했다’(D10), ‘내가 잘 결정했다’(D10), ‘취직해 새로운 세계로 출발했다’(D13)처럼 자기결정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정체성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내·외적 회복을 완성해 가는 회복의 모습이 시사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주체성을 되찾은 삶]은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세워가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세워가는 힘>은 21.43%의 빈도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평가받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도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나타났다.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 내가 자의식 같은 게 막 깨진 거지..’(D5), ‘이젠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D8), ‘나와서 일을 해보니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D8)처럼 자아인식 강화와 자기효능감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더 이상 가해자에게 종속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로서 새로운 삶을 재구성하는 회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은 35.71%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폭력과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반추하거나, 부정적 경험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아픔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 아픈 과거가 나한테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D2), ‘천천히라도 핵심을 붙들고 가는 힘이 내게 있더라’(D5) 등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회복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보고되었다. 또, ‘해맑은 아이의 웃음도 보이고, 밤하늘의 별도 보인다’(D2),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다’(D13)와 같이 삶의 감각을 회복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간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성장으로서의 회복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시사하였다.

마지막 범주인 [새 삶을 준비하고 다져가는 여정]은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꿈>,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배움과 성장>,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인정과 보람>이라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꿈>은 21.43%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 삶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고되었다. ‘아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싶다’(D3),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D3), ‘작지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D8) 등처럼 삶의 터전을 스스로 세우려는 의지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을 넘어, 새로운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여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적극적 과정이 보고되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배움과 성장>은 28.57%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폭력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배움과 자기계발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능력이 된다면 재가요양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D8),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며 직장도 학업을 병행했다’(D13),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했다’(D14) 등은 배움이 직업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보고되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인정과 보람>은 14.28%의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해 손상된 자기존중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험을 통해 회복되어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내적 동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은 잘 적응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D8),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D8), '어머니들과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D10)처럼 폭력으로부터 회복된 자아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주체적으로 기능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가정폭력은 단편적 사건의 누적이라기보다 폭력과 통제가 일상에 침투하며 구조화되는 과정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정서적 위협·공포>(64.28%)와 <신체적 폭행>(57.14%)이 높은 빈도로 보고된 점은, 피해자가 물리적, 정서적 위협 속에 놓이는 조건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생계를 통제하는 경제적 착취와 방임>(28.57%)과 <주변과 단절되게 만드는 고립의 강제>(28.57%)가 함께 보고된 양상은, 폭력의 위협이 경제적·사회적 제약과 맞물려 경험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결이 약화되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폭력의 지속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제도·경제적 조건 속에서 일부 재생산되는 구조로 나타났는데, <가정 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시선>(42.86%)과 <폭력을 견디라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21.43%)>, <세대 간 폭력의 전승>(35.71%)은 피해자에게 침묵과 인내를 강요하며 폭력 관계의 이탈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맥락을 형성하였다. 또한 <안전한 거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42.86%)과 <경제적 의존 속에 자리한 불안>(21.43%) 역시 이탈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 이탈의 어려움은 경제적 이유에만 제한되지 않았으며, <가

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21.43%),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절>(21.43%), 그리고 <폭력 속에서 무너져 가는 자존감>(28.57%),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폭력을 합리화하는 태도>(21.43%)가 중첩되면서 피해자의 선택 가능성과 주체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제약으로 드러났다. 즉, 폭력 행위-통제-고립-경제적 제약은 서로 독립된 경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탈 가능성과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들로서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폭력 관계가 지속되는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폭력 관계를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전환의 순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이탈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탈출의 전환점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변화 기대를 포기함>(35.71%)와 <폭력에 대한 인식 수립 및 강화>(21.43%), <임계치 수준의 위기 상황 직면>(42.86%) 등이 여러 연구에서 함께 보고되며, 전환점과 관련된 경험으로 제시되었다.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42.86%)와 <더 나은 삶을 기대함>(35.71%)이 함께 나타난 점은, 탈출이 외부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단일한 선택이라기보다 인식 변화와 자기보호 지향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출 이후 회복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안전 확보-정서적 지지-상담을 통한 내면 회복-재정착 준비라는 다층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적 개입 경험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효과없는 법적 조치로 인한 좌절>(21.43%)이 보고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적 보호>(35.71%)가 보고되었다. 이는 제도적 개입의 효과가 '있다/없다'로 단순화되기보다 공적·제도적 개입의

유형과 강도 그리고 쉼터, 주거, 돌봄, 법률지원 등 연계 자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되는 조건부적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의미화하며, <해방감과 새로운 출발>(42.86%), <다시 일어나는 힘>(35.71%) 등과 같은 경험을 통해 안정된 생활기반과 배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람을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재구성해 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분석 대상 연구들의 참여자 특성과 폭력 이후의 삶의 조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폭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탈출의 전환점과 자기 인식의 변화-회복을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와 자원-새로운 삶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경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개별 사건 중심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재구성되며 전개되는 경험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가정폭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양상과 원인, 과정적 전환, 지원 자원과 회복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주체적 회복과 삶의 재구성을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어떠한 흐름과 의미 구조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회복이 어떠한 과정으로 경험되고 구성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충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어떠한 자원을 통해 자기이해와 회복, 성장으로 나아가는지를 탐색하여, 상담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내·외면적 경험과 회복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주제인 '폭력의 일상화와 통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일상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관계적 차원의 폭력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삶에 단순한 사건으로서의 폭력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스며든 통제 구조로, 그 강도는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신체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폭력' 범주의 하위개념인 '정서적 위협·공포'가 64.28%로 가장 높은 빈도 효과크기를 보였고, '신체적 폭행'이 57.14%로 두 번째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피해자들은 반복적 폭행, 임신 중 폭력, 흉기 위협 등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동시에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는 심리적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긴장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통제가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위협, 성별 기반의 지배, 경제·사회적 고립을 포함한 강압적 통제체계이며, 이는 피해자의 자유와 정체성을 점차 침식하여 피해자를 종속시키는 권력체계임을 시사한다(Counts et al.,

1992; Dutton & Goodman, 2005; Stark, 2007; Williamson, 2010, 박언주, 2023). 따라서 가정폭력은 단일한 사건이나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강압적 통제라는 구조적 권력 체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겪는 통제의 지속성과 심리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핵심주제인 ‘폭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에서는 가정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적 현상임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폭력의 원인과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왜곡된 사회규범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었다 (Montesanti & Thurston, 2015). 범주 중 ‘사회와 문화 속에서 되풀이 되는 억압’의 하위개념인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시선’이 42.86%로 가장 큰 빈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의 범주에서 ‘안전한 거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 역시 42.86%로 높은 빈도 효과크기를 보였다. 피해자들은 폭력을 견디도록 요구받거나, 폭력을 당한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시선 속에 놓여있었다. 또한 생존을 위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장기간 폭력 속에서 자존감 붕괴와 폭력의 합리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억압, 경제적 종속, 제도적 한계가 심리적 종속과 맞물리며 피해자의 자율성을 약화시켜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원인임을 시사한다 (Heise, 1998; Postmus et al., 2012; Johnson et al., 2022; Hulley et al., 2023).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젠더 불균형, 경제적 제약, 제도적 한계 속에서 폭력이 지속되는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이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규범과 제도적 환경 관점으로 확장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핵심주제인 ‘탈출의 전환점과 자기인식의 변화’는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가정폭력 경험 속에서도 점차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보호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적 전환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폭력에 대한 현실 인식’과 ‘주체성 강화와 자기보호’ 두가지 범주로 도출되었고, 각 하위개념인 ‘임계치 수준의 위기상황 직면’과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각 4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반복된 폭력 속에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극단적 위기 상황을 계기로 탈출을 결심하는 전환점을 경험하였다. 동시에 폭력의 순환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며, 스스로의 생존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폭력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보호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주체적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urke et al., 2001; Anderson & Saunders, 2003; Zink et al., 2006).

네 번째 핵심주제인 ‘회복을 가능케하는 지원체계와 자원’은 피해자들이 폭력 이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회복자원이 드러났다. 이러한 자원은 피해자 회복의 다층적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 범주의 하위개념인 ‘일과 배움을 통해 세워가는 삶의 발판’이 50%로 가장 큰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안전의 회복, 정서적 안정의 확보, 관계적 지지의 확립, 경제적·사

회적 자립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고, 일과 학습을 통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심리상담, 심리치료는 정서적 위안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며,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Condino et al., 2016; Arroyo et al., 2017; Johnso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회복은 개인의 내적 회복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지관계에 의해서도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Sullivan & Bybee, 1999; Goodman et al., 2005, Fleming & Resick, 2016, 이호정, 이창배; 2025).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은 개인 내적 회복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자원이 통합적으로 마련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핵심주제인 ‘새로운 삶의 재구성’과 ‘미래지향성’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경험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삶의 방향성과 주체성을 새로이 설계하였다. 범주 중 ‘마음을 단단히 해가는 길’의 하위개념인 ‘해방감과 새로운 출발’이 42.86%로 가장 큰 빈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폭력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과 자유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작과 재탄생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세워가는 힘과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통해 자신을 신뢰하는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

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폭력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고통을 새로운 의미로 통합하여 삶의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을 보여준다(Tedeschi & Calhoun, 2004; Anderson et al., 2012).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폭력 경험과 회복의 과정은 단순히 외상으로부터의 치유를 넘어, 상처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자아의 통합을 회복하는 심리적 재탄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경험 속에서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겪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만들어가며, 내적 회복력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은 상처의 소멸이 아닌 의미의 재창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실된 통제감과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점차 회복하면서 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일부로 통합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실된 주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다룬 개별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폭력의 경험과 그 지속의 조건, 탈출의 전환점, 회복을 가능하게 한 자원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전개되는지를 하나의 경험 구조로 재구성해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체성을 제약해 온 구조적 힘을 드러내는 동시에, 회복을 단일한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다시 짜여져 가는 다층적 과정으로 조명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화가 개인 내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회복과정에 대한 질적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나, 각 연구

물의 강도 효과크기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결과 해석시 개별 연구의 기여도와 보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부분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성 피해자나 다양한 성별, 연령을 가진 대상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 세대, 관계유형별 특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대상으로 한 메타요약이므로, 원자료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인 재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종합 등의 연구방법으로 새로운 관점의 추가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부분의 분석대상이 국내 연구로 수행되어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례를 포함한 비교문화적 메타연구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회복과정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은정 (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4(2), 1-59.

고은주, 김정우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피해자학연구*, 24(2), 33-62.

경찰청 (2025). *경찰청_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건수*.
<https://www.data.go.kr/data/15127582/fileData.do?recommendDataYn=Y>.

김명찬, 박경자 (2023). 성소수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요약. *질적 탐구*, 9(2), 165-197.

*김유진 (2015).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15-346.

김잔디 (202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법연구*, 16(1), 517-538.

김재엽 (0000).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7(12), 94-134.

*김종임, 채선기 (2024). 가정폭력을 경험한 상담사의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10(2), 169-198.

김지우, 한민경 (2025).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 세대 간 전이 및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다중매개경로분석. *한국범죄학*, 19(2), 75-94.

박상태 (202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심리운동연구*, 11(1), 145-168.

박언주 (202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경제적 폭력의 범주. *한국여성학* 39(4), 67-103.

*박윤미, 장연집 (2009).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의 한부모 체험연구. *심리치료*, 9(1), 1-25.

*배영미, 서홍란 (2017). 아내학대 생존자의 쉼터에서의 원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31-58.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

- 지 여성 23(3), 549-566.
- 송만호, 주교영, 한경근 (2024). 중도중복장애 학생 통합교육 인식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7(1), 157-179.
- 송성자, 김유순, 어주경, 정윤경, 최중진. (2014).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해결중심치료학회지*, 1(1), 35-51.
- *신나래 (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쉼터거주여성의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77-110.
- 신은별, 윤향희 (2022).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3(2), 2687-2696.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98-12).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5965182acf474c08b9e44e877ad01ecf.hwpx&rs=/rfiles/202511/>.
- 오태희, 이해은 (2025). 청년의 니트 경험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사회정의 상담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5(1), 35-66.
- 이윤희 (2024). 청소년의 문제적도박 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미래청소년학회지*, 21(4), 79-104.
- 이윤희, 김지연 (2025). 상담자의 비대면 심리상담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요약. *상담학연구*, 26(1), 25-54.
- *이진현, 강희숙 (2015).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여성의 성장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31-51.
- 이호정, 이창배 (2025).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의 다중가산조절효과. *한국사회*, 26(2), 217-253.
- *이희연, 박태정 (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연구*, 78, 159-200.
- *장희숙, 황순찬 (2019).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와 경험적 지식: 상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0(3), 89-126.
- *정혜숙 (200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237-263.
- *정혜숙 (2013).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4), 245-269.
- 함선영, 박은선 (2024). 국내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대상으로 한 질적 메타요약. *미술치료연구*, 31(3), 759-784.
- *홍기순 (2008).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6(3), 149-168.
- *홍상희, 안현의 (2011). 아내 폭력 생존자가 폭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69-96.
- *황지원, 이희영. (2024).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학대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2), 525-544.
- Ames, H., Glenton, C., & Lewin, S. (2019). Purposive sampling in a qualitative evidence synthesis: A worked example from a synthesis

- on parental perceptions of vaccination communication.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9, Article 26.
<https://doi.org/10.1186/s12874-019-0665-4>
- Anderson, D. K., & Saunders, D. G. (2003). Leaving an abusive partner: An empirical review of predictors, the process of leav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rauma, violence, & abuse*, 4(2), 163-191.
<https://doi.org/10.1177/1524838002250769>
- Anderson, J. (2024). Metasummary: examining the potential of a methodologically inclusive approach for conducting systematic reviews of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view*, 1-21.
<https://doi.org/10.1080/00131911.2024.2401079>
- Anderson, K. M., Renner, L. M., & Danis, F. S. (2012). Recovery: Resilience and growth in the aftermath of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8(11), 1279-1299.
<https://doi.org/10.1177/1077801212470543>
- Arroyo, K., Lundahl, B., Butters, R., Vanderloo, M., & Wood, D. S. (2017). Short-term interventions for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8(2), 155-171.
<https://doi.org/10.1177/1524838015602736>
- Booth, A. (2016). Searching for qualitative research for inclusion in systematic reviews: a structured methodological review. *Systematic reviews*, 5, Article 74.
<https://doi.org/10.1186/s13643-016-0249-x>
- Bressan, V., Danielis, M., Caruzzo, D., Mansutti, I., Moreale, R., Longhini, J., & Palese, A. (2024). The lived experience of healthcare workers in quarantine: Findings of a systematic review, meta-synthesis and meta-summar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52(1), 95-107.
<https://doi.org/10.1177/14034948221128158>
- Burke, J. G., Gielen, A. C., McDonnell, K. A., O'campo, P., & Maman, S. (2001). The process of ending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Violence Against Women*, 7(10), 1144-1163.
<https://doi.org/10.1177/10778010122183784>
- Carman, M. J., & Kay-Lambkin, F. (2022). Long-term recovery from intimate partner violence: Recovery and h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1), 1-21.
<https://doi.org/10.3390/ijerph192113825>
- Childress, S. (2013). A meta-summary of qualitative findings on the lived experience among culturally diverse domestic violence survivor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4(9), 693-705.
<https://doi.org/10.3109/01612840.2013.791735>
- Coker, A. L., Watkins, K. W., Smith, P. H., & Brandt, H. M. (2003). Social support reduces the impact of partner violence on health: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Preventive Medicine*, 37(3), 259-267.
[https://doi.org/10.1016/S0091-7435\(03\)00122-1](https://doi.org/10.1016/S0091-7435(03)00122-1)
- Condino, V., Tanzilli, A., Speranza, A. M., & Lingiardi, V. (2016).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overview. *Research in psychotherapy*, 19(2), 79-88.
- Counts, D. A., Brown, J. K., & Campbell, J. C.

- (1992). *Sanctions and sanctuary: Cultural perspectives on the beating of wives*. CO: Westview Press.
- Dutton, M. A., & Goodman, L. A. (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 743-756.
<https://doi.org/10.1007/s11199-005-4196-6>
- Ehrensaft, M. K., Cohen, P., Brown, J., Smailes, E., Chen, H., & Johnson, J. G. (2003).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tner violence: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4), 741-753.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006X.71.4.741>
- Fleming, C. J., & Resick, P. A. (2016). Professional versus personal resource utilization i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8*(3), 319-324.
- Goodman, L. A., Dutton, M. A., Vankos, N., & Weinfurt, K. (2005). Women's resources and use of strategie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abuse over time. *Violence Against Women, 11*(3), 311-336.
<https://doi.org/10.1177/1077801204273297>
- Graneheim, U. H., & Lundman, B.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2), 105-112.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01>
- Halevi Hochwald, I., Green, G., Sela, Y., & Shacham, M. (2023). Converting qualitative data into quantitative values using a matched mixed-methods design: A new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9*(11), 4398-4410. <https://doi.org/10.1111/jan.15649>
- Hamberger, L. K., Larsen, S. E., & Lehrner, A. (2017). Coercive control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7*, 1-11. <https://doi.org/10.1016/j.avb.2017.08.003>
- Heise, L. L. (1998).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 *Violence against women, 4*(3), 262-290.
<https://doi.org/10.1177/1077801298004003002>
- Hestevik, C. H., Molin, M., Debesay, J., Bergland, A., & Bye, A. (2019). Older persons' experiences of adapting to daily life at home after hospital discharge: a qualitative metasummar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9*, article 224.
<https://doi.org/10.1186/s12913-019-4035-z>
- Herman, J.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London: Hachette uk.
- Hulley, J., Bailey, L., Kirkman, G., Gibbs, G. R., Gomersall, T., Latif, A., & Jones, A. (2023).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barriers to help-seeking among Black, Asian, minority ethnic and immigrant wome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global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24*(2), 1001-1015.
<https://doi.org/10.1177/15248380211050590>
- Johnson, D. M., Zlotnick, C., Hoffman, L., Palmieri, P. A., Johnson, N. L., Holmes, S. C., & Ceroni, T. L. (2020).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HOPE treatment and present-centered therapy in women

- residing in shelter with PTSD from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4), 539-553.
<https://doi.org/10.1177/0361684320953120>
- Johnson, L., Chen, Y., Stylianou, A., & Arnold, A. (2022). Examining the impact of economic abuse o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2, Article 1014.
<https://doi.org/10.1186/s12889-022-13297-4>
- Lawson, J. (2012). Sociological theori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2(5), 572-590.
<https://doi.org/10.1080/10911359.2011.598748>
- Min, H. Y., Lee, J. M., & Kim, Y. (2020).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6(4), 260-273.
<https://doi.org/10.4069/kjwhn.2020.11.15>
- Montesanti, S. R., & Thurston, W. E. 2015. Mapping the role of structural and interpersonal violence in the lives of women: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policy. *BMC women's health*, 1(, Article 100.
<https://doi.org/10.1186/s12905-015-0256-4>
- Postmus, J. L., Plummer, S. B., McMahon, S., Murshid, N. S., & Kim, M. S. (2012). Understanding economic abuse in the lives of surviv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3), 411-430.
<https://doi.org/10.1177/0886260511421669>
- Ribeiro, D. M., Cardoso, M., da Silva, F. Q., & França, C. (2014).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empirical findings in literature reviews. *In Proceedings of the 8th ACM/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pirical Software Engineering and Measurement*, 1-4.
<https://doi.org/10.1145/2652524.2652562>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3). Classifying the findings in qualitative studi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3(7), 905-923.
<https://doi.org/10.1177/1049732303253488>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6).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andelowski, M., Voils, C. I., & Barroso, J. (2007).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finding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1), 99-111. <https://doi.org/10.1002/nur.20176>
- Shakespeare, C., Merriel, A., Bakhbaki, D., Baneszova, R., Barnard, K., Lynch, M., Storey, C., Blencowe, H., Boyle, F., Flenady, V., Gold, K., Horey, D., Mills, T., & Siassakos, D. (2019). Par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experiences of care after stillbirth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summary.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 Gynaecology*, 126(1), 12-21.
<https://doi.org/10.1111/1471-0528.15430>
- Shorey, S., & Baladram, S. (2024). "Does it really get better after dad leaves?" Children's experiences with domestic violence: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5(1), 542-559.
<https://doi.org/10.1177/15248380231156197>
-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 University Press.
- Stephen, S., Bell, L., Khan, M., Love, R., Macintosh, H., Martin, M., Moran, R., Price, E., Whitehead, B., & Elliott, R. (2022). Comparing helpful and hindering processes in good and poor outcome cases: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eight Hermeneutic Single Case Efficacy Design studies. *Psychotherapy Research, 32*(3), 389-403.
<https://doi.org/10.1080/10503307.2021.1934746>
- Sullivan, C. M., & Bybee, D. I. (1999). Reducing violence using community-based advocacy for women with abusive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43-53.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006X.67.1.43>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Timulak, L. (2009). Meta-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A tool for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9*(4-5), 591-600.
<https://doi.org/10.1080/10503300802477989>
- Williamson, E. (2010). Living in the world of the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Negotiating the unreality of coercive control. *Violence against women, 16*(12), 1412-1423.
<https://doi.org/10.1177/1077801210389162>
- Zink, T., Jacobson Jr, C. J., Pabst, S., Regan, S., & Fisher, B. S. (2006). A lifetim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ping strategies of older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5), 634-651.
<https://doi.org/10.1177/0886260506286878>

*표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고문헌임.

1차원고접수 : 2026. 01. 06.

심사통과접수 : 2026. 02. 02.

최종원고접수 : 2026. 03. 30.

A Qualitative Metasummary of Domestic Violence Survivors' Experiences

Jae Yeon Kim Hee Sue Kim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integrate findings from domestic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violence and recovery processes. Fourteen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in Korea up to August 2025 were selected, and their methodological quality was reviewed using the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2024).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approach, 441 first-order statements were extracted and condensed into 40 summary statements, which were integrated into 16 categories and five core themes. The identified themes included the everydayization and control of violence, structural factors sustaining violence, turning points toward escape and changes in self-awareness, support systems facilitating recovery, and the reconstruction of a new life. Frequency effect size analysis showed that emotional threats and fear (64.28%) and physical assault (57.14%) were most prevalent, followed by rebuilding life through work and learning (50%). These findings highlight shared meaning structures and processes of change in survivors' experience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supporting recovery.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Survivors,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Qualitative Metasummary